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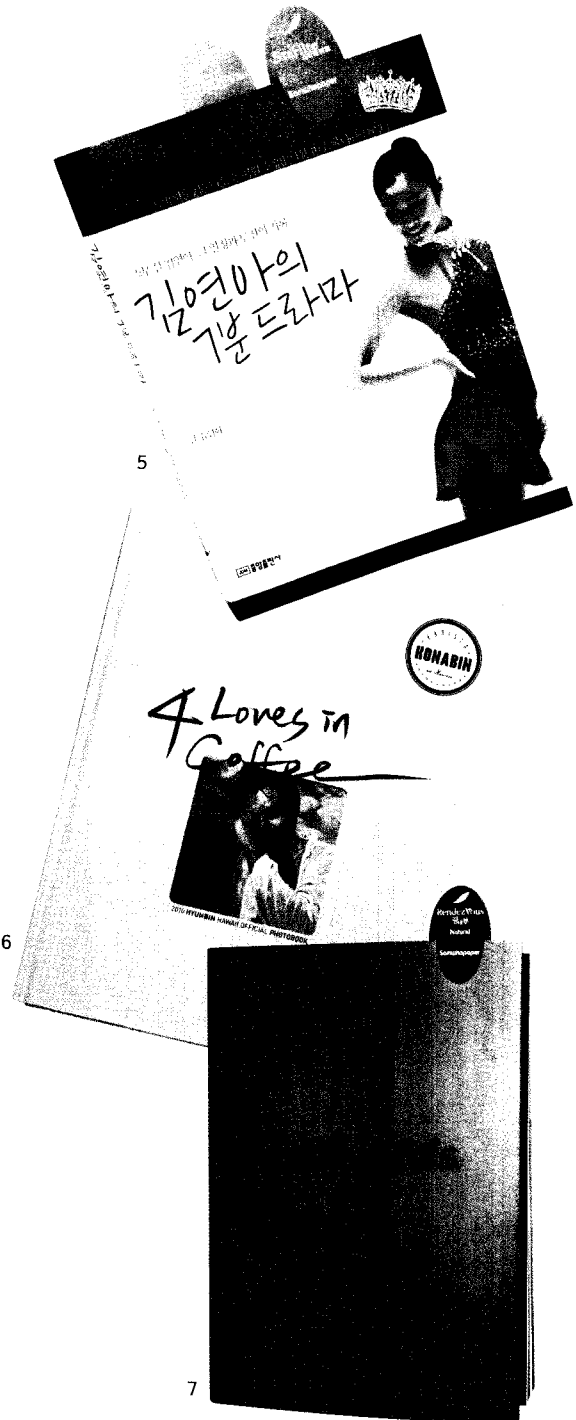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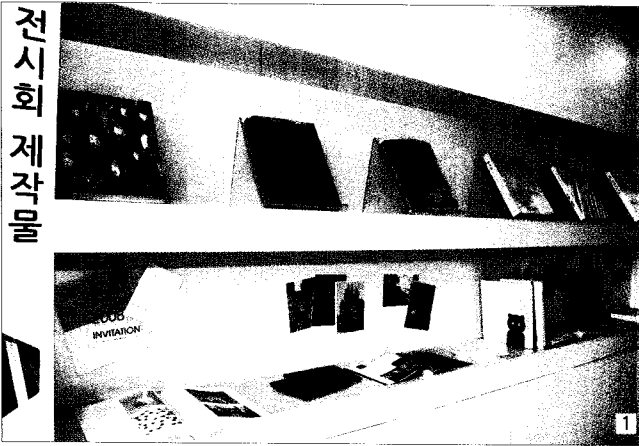
## 삼화제지의 종이로 제작된 인쇄 소장품 전시해

삼화페이퍼갤러리는 지난 1월 4일부터 2월 28일까지 2011년 들어 처음으로 가진 전시회였던 '인쇄물展'을 성황리에 마쳤다고 밝혔다.

이번 전시회에 대해 회사측은 그 동안 삼화제지의 종이로 제작되었던 다양한 인쇄 소장품들을 한 자리에 모아 놓고 기업홍보물, 서적, 졸업 작품집, 전시회 제작물, 유명 인사들의 화보집 등의 5종류로 나누어 전시했다고 전했다. 도서관에 온 것 같은 공간 구성으로 누구나 자유롭게 원하는 종류의 책들을 펼쳐볼 수 있게 했으며 고급 인쇄 용지인 랑데뷰, 아이리스가 다양한 인쇄물을 더욱 돋보이게 하는 품질을 선보였다고 밝혔다.

해마다 개성 넘치고 특색 있는 전시회를 연이어 선보인 바 있는 삼화페이퍼갤러리는 올해도 새로운 기획으로 고객과 업계 관계자들을 찾아갈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전시회  
제작물



1. 2008서울포토쇼 등 각종 전시회에서 실제로 제작, 활용되었던 인쇄물이 전시되어 있다. 시원한 디자인과 고급스러운 색상의 조화가 눈길을 끈다.
2. 단색을 주로 사용하면서도 어린이들의 천진난만한 표정을 잘 담은 그림
3. 뛰어난 색상 표현력을 인정 받아 인테리어 카탈로그에 사용되어 실용적인 면에서도 사용되었다.
4. 연예인들의 화보집에도 사용되어 품질의 우수성과 뛰어난 인쇄적성을 인정 받았다.
5. 세계적 피겨스케이터 김연아 선수의 에세이집에도 사용되었다. 재질은 링크와 스타라이트.
6. 여백의 미와 강렬한 글자체가 대비를 이루고 있다.
7. 여백의 미를 살린 학술지